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123

JCCT 2023-11-15

동남아시아 지역 종교와 방한 관광수요의 영향 관계 분석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Religions in Southeast Asia and Tourism Demand in Korea

김도훈*

Kim, Do-Hoon*

요약 본 연구는 국제관광수요를 결정하는 문화요인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적 관심과 종교에 대한 이해의 필요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적 요인이 방한관광수요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종교요인이 관광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지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방한관광객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종교적 특색이 잘 나타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선정하였다. 설명변수는 경제요인인 GDP와 명목환율 그리고 특성효용이론에 기초하여 종교적 다양성을 관광수요 모형의 특성 요인 변수로 선정하였고, 중력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추정결과 GDP 경우 방한관광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명목환율 변수와 종교적 다양성 변수는 방한관광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는 한국을 방문하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관광객의 경우 관광목적지를 선택에 있어 종교가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들은 종교적으로 유사한 목적지를 선택한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동남아시아 지역, 종교적 다양성, 특성효용이론, 방한관광수요, 중력모형

Abstract As part of the research on cultural factors that determine international tourism demand, this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regional interest and the need for understanding relig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test how religious factors affect tourism demand in Korea to find out that religious factors are important considerations in establishing tourism policies and strategie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research target areas were selected as Thailand,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which have relatively many tourists visiting Korea among Southeast Asian countries and are well known for their religious characteristics. GDP and nominal exchange rate, which are economic factors, were selected as explanatory variables. And religious diversity was selected as a characteristic factor variable of the tourism demand model based on the characteristic theor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a gravity model.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it was found that GDP has a positive effect on tourism demand in Korea. Nominal exchange rate variables and religious diversity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ourism demand in Korea. We have confirmed that religion is an important factor in choosing tourist destinations for Filipino, Thai, and Malaysian tourists visiting Korea, and they choose religiously similar destinations.

Key words : Southeast Asia, Religions Diversity, Characteristics Theory, Tourism Demand in Korea, Gravity Model

*정회원, 동아대학교 아세안연구소 조교수
접수일: 2023년 10월 3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3, 2023 / Revised: October 21, 2023

Accepted: Nov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kdh10954@dau.ac.kr

Institute of ASEAN Studies, Dong-A Univ, Korea

I. 서론

엔데믹(endemic) 시대를 맞아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관광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관광수요 조기 선점을 위해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정하였다. 특히 한국관광시장에서 주력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 편중된 구조를 벗어나 새로운 시장으로 다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향후 방한관광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으로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성장가능성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지역의 경제요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2021 국가이미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필리핀(92%), 태국(90.8%) 등 7개 국가에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국제관광수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경제규모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의 경우 경제규모는 3조 3,500억 달러로 세계 5위, 경제성장률의 경우 2019년 4.8%, 2020년 4.9%로 세계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제규모 측면에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이며 태국과 필리핀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1].

어느 국가를 관광목적지로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2].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경제규모 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방한관광수요 결정요인에 있어서 문화적인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는 인종적, 종교적 혹은 사회적 집단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온 관습적인 가치 및 신념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3]. 이런 문화는 사람들이 정보를 선택하고, 이해하고, 사용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4]. 또한 문화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경험법칙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5]. 즉 관광이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문화적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친화성이 국제관광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종교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서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및 정치적 변수를 통제한

후 공통 종교를 공유하는 것이 양국 관광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6]. 이런 연구 결과는 종교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수요 요인이라는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관광수요 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사회·문화적인 요인 특히 종교요인을 고려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국제관광흐름의 결정요인으로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는 종교여행 활동과 성과를 다루는 연구인 순례와 같은 사례연구들과 관광목적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여러 문헌에 따르면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징으로 종교의 강력한 역할을 들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사회,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7]. 이와 같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관광수요 결정요인 분석에서 사회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인 종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국제관광수요 결정요인 중 문화요인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지역적 관심과 종교에 대한 이해의 필요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종교적 요인이 방한관광수요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종교요인이 관광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의 종교적 다양성은 방한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종교적 차원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관광객 유치에 위한 한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검토

1. 종교와 관광

종교와 관광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종교관광’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수립하려는 연구들이 있다. 종교관광과 고고학의 교차에 대한 개념적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종교관광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고고학적 유적지와 종교유산, 종교관광의 연관성, 유적지의 공급 중심 유형과 방문자의 특성에 따른 유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8]. 두 번째 주제는 관

광목적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다. 그 중 베트남의 종교 관광 자원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교 경관이 어우러진 종교관광 목적지로서 호치민 지역의 종교 경관별 특성과 지역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9]. 세 번째는 종교의 관광 동기부여에 관한 연구들이 있는데 우선 중국 내 종교 현장을 여행하는 관광객의 동기를 평가하는 측정 척도를 개발한 연구가 있다[10]. 그리고 관광객의 동기를 분류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각 방문자 그룹은 고유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방문자는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1]. 관광객의 동기에서 세속적인 방문의 개념은 비종교적인 성지로의 여행을 강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관광과 종교 사이의 교차점에 대한 보다 전체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12]. 종교적 동기와 행동보다는 영적 측면에서 순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순례는 더 이상 종교적 여행의 전유물이 아니며, 많은 유형의 관광객들은 영적 행복, 깨달음, 지식, 사회적 관계에 대한 탐구에 의해 종교적 목적지로 여행하도록 동기를 부여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관광과 종교관광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13]. 네 번째 주제는 종교관광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우선 방문자 경험, 활동 및 편익에 대한 연구는 서로 다른 방문자의 정신적 경험을 포함하여 다른 현장에서의 경험을 비교하는 연구가 있다[14]. 그리고 종교에 따라 예루살렘에서의 경험이 관광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사회적 거리개념을 사용하여 종교적 목적지의 관광객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다[15]. 예루살렘에서 무슬림, 유대인, 기독교인의 경험을 특징짓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종교관광 경험은 정신적 관여, 소속, 정서적 연결 및 휴식으로 구성된 다면적인 구조라고 주장한 연구도 있다[16]. 다섯 번째로는 국제관광 흐름의 결정요인으로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 연구에는 종교를 관광의 요인으로 포함시키고 그리스 정교회 관광의 사례 연구를 통해 관광객들 사이의 차별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 연구가 있다[17]. 산티아고 방문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산티아고와 새로운 근처의 목적지인 피스테라(Fisterra)는 순례의 의미가 상업화된 대중 관광의 경향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관광과 종교의 탈분화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18]. 여섯 번째 주제로는 지속가능성, 지역사회기반 관광, 지속가능

한 관광개발 등과 같은 개념을 기초로 한 연구들이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태도와 대응, 관련 영향, 물리적 환경과 지역주민의 갈등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관광학문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잉관광과 종교 유적지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문제도 관련이 있다. 중국 소림사의 상업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한 예이지만, 이러한 성지의 과도한 상업화는 불교적 가치와 철학에 역행할 수 있다[19]. 그리고 무슬림의 특성과 배경이 강한 인도네시아 롬복 섬에서의 비이슬람 교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연구가 있다[20]. 위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관광흐름의 결정요인으로서 종교의 역할을 탐색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는 종교여행 활동과 성과를 다루는 연구인 순례와 같은 사례연구들과 관광목적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2. 동남아시아 지역의 종교적 특성

동남아시아 지역은 크게 대륙부와 도서부로 나눌 수 있는데 대륙부에 있는 국가들은 불교문화권에 속한다. 이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3-2세기경부터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이어 불교가 전파되면서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중 태국과 캄보디아, 미얀마는 인구의 90% 이상이 상좌부불교를 믿는다[7]. 동남아시아 상좌부불교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으나 불교가 국민 대부분의 생활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서부는 과거에 이슬람이 전파된 곳으로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지역이다[7].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무슬림 인구 비율이 50%이지만, 인도네시아 다수 민족인 말레이인 경우는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다.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거치면서 가톨릭이 지배적인 종교가 되었다. 필리핀의 경우 인구의 83%가 가톨릭 신자이다[7].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인구의 절대다수가 하나의 특정 종교를 믿고 있다. 하지만 불교가 우세한 태국이나 가톨릭이 우세한 필리핀의 경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의 무슬림이 있다. 또한 무슬림이 지배적인 인도네시아에도 개신교나 힌두교가 우세한 지역이 있다. 베트남의 경우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남부 코친차이나 일대엔 가톨릭 신자들도 많으며,

공산주의 정권의 영향으로 무종교인이나 무신론자도 상당수이다.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를 믿는 미얀마의 경우 산간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개신교가 강세이다. 이처럼 동남아시아 지역은 세계 종교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종교가 존재한다. 또한 동남아시아 종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국가통합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지역통합 과정에서 중앙의 종교 문화를 주변부로 확산시키고 강요하는 문화제국주의적 양상을 전개시켰다. 이처럼 종교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적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적 신념은 관광객들의 목적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속성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광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국제관광수요 결정요인과 특성효용이론

관광수요 결정요인은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종류나 영향력은 지역, 나라, 그리고 문화권이나 시기마다 달라 한마디로 결정인자가 무엇이냐고 규정할 수는 없다. 많은 실증연구에 따르면 국제관광수요 결정요인 변수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요인들로 경제요인인 개인소득(또는 가구소득)과 관광비용은 여전히 주요한 요인이지만, 정치적 안정성, 기후, 해안경관, 개인적 동기 및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들(나이, 젠더, 결혼상태, 가구 크기, 직업)이 점차 미시적 관점의 계량경제 관광수요 모델링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하여 관광수요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관광수요 결정요인으로 경제요인 이외에 종교요인에 주목하는데 이 새로운 접근법은 특성효용이론(characteristics theory)에서 힌트를 얻는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효용이론적 관점을 수용하여 국제관광수요의 결정요인들을 추가적으로 모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특성효용이론은 어떤 상품(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그 상품 자체가 아니라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제 특성(characteristics)에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21].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관광수요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관광 상품으로서의 제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 특성에는 정치적 안정성, 기후, 해안 경관,

기타 사회문화적 특성 등이 포함된다. 종교는 관광목적지 국가가 갖는 사회문화적 특성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성효용이론에 기초하여 종교를 관광수요 모형의 특성 요인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지배적인 종교가 있으면서 소수 종교가 함께 존재하는 종교적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증분석에서 종교요인은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변수설명

국제관광수요에 관한 실증연구에서 연구기법은 계량모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요인이 국제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데이터 분석법을 활용할 것이다. 패널데이터 분석법은 국가 간 변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관광수요의 근본적 요인을 파악하는 데 더 유리하다. 그리고 국가 간 관광 흐름 분석을 위한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도입할 것이다. 이는 중력모형이 국제관광수요 분석에서 문화적 거리와 같은 문화요인을 설명변수로 사용할 때 자주 활용되고 최근에는 국제무역뿐 아니라 이주, 외국인 직접투자, 관광흐름 등의 설명에도 적용되고 있다 [22].

중력모형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의 원리에서 힌트를 얻어 양국 간의 무역 흐름을 양국의 경제 규모와 양국 간의 거리 요인을 통하여 설명하는 모형이다. 중력모형을 나타내는 식은 다음과 같다[23].

$$T_{ij} = A \left(\frac{Y_i Y_j}{D_{ij}} \right) \quad (1)$$

식(1)에서 T_{ij} 는 양국 간 교역규모, Y_i 는 i 국의 GDP, Y_j 는 j 국의 GDP, D_{ij} 는 i 국과 j 국간의 거리, A 는 비례상수이다.

본 연구의 방한관광수요 모형은 경제요인과 종교요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Y_{ij} = \beta_0 + \beta_1 GDP_{ij} + \beta_2 EX_{ij} + \beta_4 DV_{ij} + \epsilon_{ij} \quad (2)$$

식(2)에서 Y_{ij} 는 관광객 원천국 i 에서 관광목적지

j 국으로의 방문객의 숫자, GDP_{ij} 는 관광객 원천국 i 의 GDP와 관광목적지 j 국 GDP의 곱의 값, EX_{ij} 는 관광객 원천국 i 와 관광목적지 j 국 사이의 명목환율, DV_{ij} 는 관광객 원천국 i 와 관광목적지 j 국 사이의 종교의 다양성지수이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동남아시아 지역은 문화에서 종교가 강력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광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주요 변수로 선정하였다. 관광목적지 국가로 한국을 설정하였고 관광객 원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방한관광객 수, 경제적인 규모, 종교적 특색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며 변수들의 자료 출처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방한관광수요는 한국을 방문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관광객 수로 설정하였다. 방한 관광객 수의 출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다 [24]. 설명변수는 GDP와 명목환율 그리고 종교로 설정하였다. GDP와 명목환율은 소득과 상대가격의 대리변수로 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정량적 영향 요인이다. GDP와 명목환율은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25]. GDP 변수는 한국 GDP와 방한 관광객 원천국 GDP의 곱의 값을 사용하였다. 명목환율은 방한 관광객 원천국의 달러 환율을 한국의 달러 환율로 나누어 구하고, 2015년도를 기준으로 지수화하여 사용하였다. 또 하나의 설명변수는 특성 효용이론에 기초하여 종교를 관광수요 모형의 특성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종교요인은 종교적 다양성을 고려하였고 Pewresearch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26]. 종교의 다양성 지수는 아래 식(3)과 같이 구할 수 있다[27]. 이것은 각 나라의 종교에 대한 허핀달 지수(Herfindahl index 즉, 각 나라의 종교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DV_{ij} = (1 - \sum_{r=1}^6 r_i^2)(1 - \sum_{r=1}^6 r_j^2) \quad (3)$$

식(3)에서 r 은 기독교(가톨릭과 개신교 통합), 이슬람

교, 힌두교, 불교, 유대교, 기타(무교 포함)의 6개 주요 종교에 대한 소속 인구의 비율이다. 이 지표는 더 많은 수의 종교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을 때 하나로 커진다. 따라서 이 다양성 지수는 각 국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종교에 속할 확률이다. 즉 관광목적지 국가와 관광객 원천국 국가의 두 개인이 믿는 종교가 다른 종교에 속할 확률의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중력모형은 고정효과 최소자승법(OLSFE)으로 추정된다. 국가 고유의 고정효과와 연도 고정효과가 포함된다는 의미다. 거리, 공통 국경, 언어, 식민지 관계, 공통 종교 등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 추정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정효과는 패널 추정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모형은 패널 고정효과 모형의 특수 형태다. 중력모형을 적용할 경우 분산(heteroskedasticity) 문제와 누락된 관측치(missing values)의 처리문제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 KOSIS 국가통계포털, Pewresearch에서 제공한 데이터로 추정방법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종속변수인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방한 관광객 수의 경우 0인 경우가 없고, 국제관광수요를 결정하는 설명 변수들 중 고려하지 못한 변수들이 특정 지역에만 다르다고 보기가 어려워, 고정효과 최소자승법을 활용한다.

IV. 실증분석

1.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아래의 표들에 나타나있다. 표 1에 보인 바와 같이 방한 필리핀 관광객의 평균 방문객 수는 약 127,200명으로 조사시작 연도인 2006년 42,207명에서 2019년 285,080명으로 꾸준히 성장하여 14년 동안 약 675.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양국 GDP의 곱의 값)는 국제금융위기인 200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명목환율 지수는 2009년 92.90로 가장 낮았고, 2006년에 133.60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105.76으로 나타났다.

표 1. 필리핀 관광수요 변수들의 통계량

Table 1. Statistics of Philippine tourism demand variables

구분	Y(방한관광객 수: 명)	GDP(양국GDP 곱의 값; 10조 US 달러)	EX(양국 명목환율 지수)
평균값	127,200	360.775	105.76
중앙값	105,048	361.910	100.88
최대값	285,080	622.096	133.60
최소값	42,207	134,391.48	92.90
표준편차	80,112.	164,898.83	12.27

표2는 방한 태국 관광객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 방문객 수는 약 282,899명으로 나타났다. 2006년 72,201명에서 2019년 484,496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과 2015년의 경우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조사기간인 14년 동안 약 671%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GDP의 경우 2009년과 2015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명목환율 지수는 2019년 87.96로 가장 낮았고, 2006년에 131.03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105.76으로 나타났다.

표 2. 태국 관광수요 변수들의 통계량

Table 2. Statistics of Thailand tourism demand variables

구분	Y(방한관광객 수: 명)	GDP(양국GDP 곱의 값; 10조 US 달러)	EX(양국 명목환율 지수)
평균값	282,899	526.997	99.57
중앙값	30,0754	542.097	98.08
최대값	484,496	898.639	131.03
최소값	72,201	233.422	87.96
표준편차	145,080	214.727	12.60

표 3은 방한 인도네시아 관광객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낸 것으로 평균 방문객 수는 약 90,693명으로 나타났다. 방문객 수는 2015년을 제외하고 2006년 24,897명에서 2019년 192,606명으로 급속도로 성장하여 약 77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GDP의 경우 2009년과 2015년 마이너스 성장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명목환율 지수는 2010년 66.45로 가장 낮았고, 2018년에 109.31으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85.41으로 나타났다.

표 3. 인도네시아 관광수요 변수들의 통계량

Table 3. Statistics of Indonesia tourism demand variables

구분	Y(방한관광객 수: 명)	GDP(양국GDP 곱의 값; 1조억 US 달러)	EX(양국 명목환율 지수)
평균값	90,693	111.5476	85.41
중앙값	93,448	121.1874	82.09
최대값	192,606	1,847.63	109.31
최소값	24,897	383.705	66.45
표준편차	56,065	490.379	14.91

조사대상국 중 평균적으로 방한 관광객 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태국이었으며, 다음으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순으로 조사되었다. GDP 평균 역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수 증가율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조사대상국의 종교적 다양성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종교의 다양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필리핀, 태국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불교가 우세한 태국이나 가톨릭이 우세한 필리핀의 경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한 수의 무슬림이 있으며, 무슬림이 지배적인 인도네시아에도 개신교나 힌두교가 우세한 지역이 있는 선행연구를 반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4. 각국의 종교의 다양성 지수

Table 4. Religious diversity index of each country

구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다양성 지수	1.6	1.5	2.6

2. 중력모형 분석 결과

표 5는 고정효과 최소자승법(OLSFE)으로 추정된 동아시아지역 종교와 방한 관광수요와의 영향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중력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F값은 31.947이며,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본 연구모형의 R^2 값은 .716이고 수정된 R^2 값은 .694로 연구모형의 설명력이 약 69%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방한 관광수요에 대한 추정결과 중력모형의 변수들은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기대되는 부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회귀계수

의 신뢰 확인을 위해 공선성 통계량을 확인하였다. 공선성 통계량이 다중공선성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 설명변수들의 VIF 값이 모두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GDP 경우 추정 계수 값이 2,808.02으로 방한 관광수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GDP가 증가할수록 한국으로 방문하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이 늘어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명목환율의 경우 방한관광수요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환율의 상승은 관광객 원천국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관광비용의 증가를 불러오기 때문에 방한 관광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요 관심 변수인 종교적 다양성 변수는 방한 관광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적 다양성이 클수록 방한 관광객 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을 방문하는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관광객의 경우 관광목적지를 선택에 있어 종교가 중요한 요인이 되며 이들은 종교적으로 유사한 목적지를 선택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5. 방한관광수요 모형 추정

Table 5. Estimation of the demand model for tourism in Korea

Variable	Coef.	std. Error	t-Statistic	Prob.	VIF
Y	898703.9	122913	7.311705	0.000	
GDP	2808.02	0.03487	8.052897	0.000	4.00
EX	-2853.62	861.7028	-3.3116	0.002	2.06
DV	-33869.2	35853.23	-9.44663	0.000	6.76
R2 .716, Adjusted R2 .694, F-Statistic 31.947, Prob(F-Statistic) 0.000					

자료) 종속변수 : Y : 방한 관광객 수, 설명변수 : GDP : 한국 GDP × 방한 관광국 GDP, EX : 한국-방한 관광국 명목환율
 DV : 종교의 다양성 지수

V. 결론

종교는 관광객의 목적지 선택에 동기를 부여하든 제약하든 관광객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요소이다. 본 연구는 특성효용이론적 관점을 수용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 종교, 관광 현상 간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종교요

인과 방한관광객 수요의 영향 관계에 대해 정량적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 지역의 관광 매력에 대한 종교의 기여는 여러 문헌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선행연구들은 주로 성지순례에 대한 특정 사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정량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명확한 학술적 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문화와 종교 그리고 관광의 연계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한 연구결과는 관광 기관과 관광정책 입안자들이 한국의 관광경쟁력 향상에 있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R. Chen, Y. Wang, M. Choi, Z. He, and M. Li,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Sinar Mas Group in Indonesia,"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Vol. 11 No. 2 pp. 118-124, 2023. <https://doi.org/10.17703/IJACT.2023.11.2.118>
- [2] W. S. Kim, "Impacts of Factors of Tourists' Decision to Visit Korea and Their Nationality on Tourism Decision Mechanism Using MANOVA,"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9, No. 5, pp. 175-183, 2023. <https://doi.org/10.17703/JCCT.2023.9.5.175>
- [3] L. Guiso, P. Sapienza, and L. Zingales, "Does culture affect economic outcome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0, NO. 2, pp. 23-48. 2006. DOI: 10.1257/jep.20.2.23
- [4] H. C. Triandis, *Culture and social behavior*. Boston: Mcgraw-Hill Book Company, 1994.
- [5] N. Nunn, "Culture and the historical process. Economic," *History of Developing Regions*, VOL. 27. sup-1, pp. 108-126, 2012. <http://dx.doi.org/10.1080/20780389.2012.664864>
- [6] C. Vietze, "Cultural effects on inbound tourism into the USA: a gravity approach," *Tourism Economics*, VOL. 18 NO. 1, pp. 121-138, 2012. <https://doi.org/10.5367/te.2012.0100>
- [7] H. G. Cho, "The Making of Southeast Asian Culture and Society," *suvannabhumi*, Vol 1, No 1 pp. 1-25, 2009.
- [8] N. Collins-Kreiner, "Pilgrimage tourism - Past, present and future rejuvenation: A perspective article," *Tourism Review*, Vol. 75, No. 1, pp. 145

- 148, DOI 10.1108/TR-04-2019-0130
- [9]S. I. Jin and B. K. Yoon, "A Study on Religious Tourism Resources in Vietnam - Focusing on the Religious landscape of Ho Chi Minh City -,"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KOREAN PHOTO-GEOGRAPHERS, Vol. 28, No. 3, pp. 51-71, 2018.
- [10]W. Wang, J. S. Chen, and K. Huang, "Religious tourist motivation in Buddhist Mountain: The case from China,"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21, No. 1, pp. 57 - 72, 2015. <https://doi.org/10.1080/10941665.2015.1016443>
- [11]J. Liro, I. Soĳan, and E. Bilska-Wodecka, "Spatial changes of pilgrimage centers in pilgrimage studies - Review and contribution to future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Religious Tourism and Pilgrimage, Vol. 6, No. 3, pp. 1-17, 2018. <https://doi.org/10.21427/v92c-8113>
- [12]K. Kirillova, "Existentialism and tourism: new research avenu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Cities, Vol. 5, No. 3, pp. 429-442. 2019. <https://doi.org/10.1108/IJTC-02-2019-0033>
- [13]B. Kim, S. Kim, and B. King, "Religious tourism studies: evolution, progress, and future prospects," Tourism Recreation Research, Vol. 45, No. 2, pp. 185-203, 2020. <https://doi.org/10.1080/02508281.2019.1664084>
- [14]N. Bond, J. Packer, and R. Ballantyne, "Exploring visitor experiences, activities and benefits at three religious tourism sit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17, No. 5, pp. 471 - 481, 2014. <https://doi.org/10.1002/jtr.2014>
- [15]G. P. Nyaupane, D. J. Timothy, and S. Poudel, "Understanding tourists in religious destinations: A social distance perspective," Tourism Management, Vol. 48, pp. 343-353, 2015. <https://doi.org/10.1016/j.tourman.2014.12.009>
- [16]T. Albayrak, R. Herstein, M. Caber, N. Drori, M. Bideci, and R. Berger, "Exploring religious tourist experiences in Jerusalem: The intersection of Abrahamic religions," Tourism Management, Vol. 69, pp. 285 - 296, 2018. <https://doi.org/10.1016/j.tourman.2018.06.022>
- [17]M. Terzidou, C. Scarles, and M. N. K. Saunders, "Religiousness as tourist performances: A case study of Greek Orthodox pilgrimag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66, pp. 116 - 129, 2017. <https://doi.org/10.1016/j.annals.2017.06.009>
- [18] T. Blom, M. Nilssonand, and X. Santos, "The way to Santiago beyond Santiago. Fisteria and the pilgrimage's post-secular meaning," Europ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12, pp. 133 - 146, 2016. <https://doi.org/10.54055/ejtr.v12i.217>
- [19]K. Hung, X. Yang, P. Wassler, D. Wang, P. Lin, and Z. Liu, "Contesting the commercialization and sanctity of religious tourism in the Shaolin Monastery,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19, No 2, pp. 145-159. September 2017. <https://doi.org/10.1002/jtr.2093>
- [20]A. Bastaman, "Lombok Islamic tourism attractiveness: Non-Moslem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 Vol. 7, No. 2, pp. 206 - 210, 2018. <https://doi.org/10.59160/ijscm.v7i2.1985>
- [21]K. J. Lancaster, "A new approach to consumer theo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4, No. 2, pp. 132-157, 1966. <http://dx.doi.org/10.1086/259131>
- [22] S. Gil-Pareja, R. Llorca-Vivero, and J. A. Martínez-Serrano, "The impact of embassies and consulates on tourism," Tourism Management, Volume 28, No 2, pp. 355-360, 2007. <https://doi.org/10.1016/j.tourman.2006.04.016>
- [23]J. Tinbergen, "Les données fondamentales d'un plan régional," evue Tiers Monde, vol. 3, No. 11, pp. 329-336, 1962. <https://doi.org/10.3406/tiers.1962.1086>
- [24]Tourism Knowledge & Information System, <https://know.tour.go.kr> 2023.
- [25]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2023.
- [26]Pewresearch <https://www.pewresearch.org/download-datasets> 2023.
- [27]J. Hergueux, "How does religion bias the al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role of institutions,"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28, pp. 53-76, 2011. [https://doi.org/10.1016/S2110-7017\(13\)60003-7](https://doi.org/10.1016/S2110-7017(13)60003-7)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